

이주민의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migrants' intention
to settle on migrants' willingness to settle)

김세연 • 이혜지 • 이정현 • 송현진 • 최태원

<초록>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이민과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령, 성별, 직업 유무, 임금, 체류기간, 가족 동반 거주 여부, 본국이 정주의향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한계로 동아시아 출신 중심의 표본과 미포함된 사회적 변인 등이 있으며,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를 완성하는 데 있어 아낌없는 도움과 지도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연구의 주제 선정부터 연구 전반에 걸쳐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신 신선호 교수님,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김태봉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의미한 경제 현안 세미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 | |
|------------------------|----|
| I. 서론 | 2 |
| 연구 목적 | 2 |
| 이론적 배경 | 3 |
| II. 연구 설계 | 4 |
| 데이터 정제..... | 4 |
| 연구 모형 및 변수 | 6 |
| III. 연구 결과 | 10 |
| IV. 결론 | 13 |
| 연구 요약 | 14 |
| 연구의 결론 및 의의..... | 14 |
|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15 |
| V. 참고문헌 | 16 |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과 이민 확대를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영란 외, 2015). 특히,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²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별적 유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김영란 외, 2015).

외국인력 유입 정책은 단순히 노동력 충원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적 통합에 장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자 유입 정책을 통해 인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이민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규용, 2015; 김영란 외, 2015). 따라서 이민 정책은 노동시장의 요구와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민의 체류 기간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이민 정책 설계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주 기간은 이주민과 본국 양측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목적국에서의 임금 수준과 경제적 기회가 체류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Dustmann & Kirchkamp, 2002).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민의 경제적 성과가 향상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경제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이주민의 체류 경험이 본국의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주민의 정주 의향은 해당 국가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비자 제도와 등 단순히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정주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술 수준, 교육 배경, 모국에서의 소득 분포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해 목적지를 선택한다(Borjas, G. J., 1987). 이러한 요인들은 이주민이 목적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경제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주민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주민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이주민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적인 경제적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²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노동자의 기술·역량과 기업의 요구가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 부족과 인력난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

<표 1. 이주민의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동향>

| 연도 | 학술지명 | 연구 제목 |
|------|--|--|
| 2022 | Journal of Economics, Finance and Accounting Studies, |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f Overseas Filipino Workers. |
| 2017 |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Understanding membership in a world of global migration:(How) does citizenship matter? |
| 2014 | International Migration | Ethnic labor market contexts and the earnings of Asian immigrants |
| 2012 | European Union Politics | Explaining-access-to-citizenship-in-Europe-How-citizenship-policies-affect-naturalization-rates |
| 2010 |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Nations, | Migrant workers: Motives for migration, contingency of choice and willingness to remain in the host country |
| 2009 | National Rural Health Conference in Cairns | Settlement of immigrants in regional South Australia-role of socioeconomic determinants |
| 2009 | Ethnicity and labor market outcomes |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s of immigrant characteristics and country of origin. In Ethnicity and labor market outcomes |
| 2008 | Explain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ntions and behavior | Emigration intentions: Mere words or true plans? Explain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ntions and behavior. |
| 2002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 The optimal migration duration and activity choice after re-migration. |
| 2000 | Malaysia's manufacturing sector. International Migration, | Why Do Migrant Workers Intend to Extend Their Stay in Host Countries? The Case of Bangladeshi Workers in Malaysia's Manufacturing Sector |
| 1987 | Self-selection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 <i>Self-selection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i> |
| 1981 | Studies in labor markets | Labor mobility and wages |
| 1981 | United States: The roles of information and psychic costs. Economic Inquiry, | Labor force migration and allocative efficiency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s of information and psychic costs. Economic Inquiry |
| 1978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A theory of job shopping |
| 1978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Does unemployment affect migration? Evidence from micro data |

국내 이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이주민의 귀화나 정주 의향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최인지 외, 2022)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대상 또한 결혼이민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주를 이뤘다. 북미권이나 유럽 지역의 경우 이주의 시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같이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연구가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으며 성별이나 연령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Bloemrad, I., & Sheares, A., 2017) 뿐만 아니라 출신국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Goel, K., & Goel, R., 2009). 선행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는 나이, 교육 수준, 가족 상태, 거리, 실업률 등이 다루어져 왔다(McConnell et al., 1986). 개인적 변수는 이주민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연령, 성별, 임금, 최종 학력 등은 국적 및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이주민의 이주 및 정착 의향에 있어서 성별은 주요한 개인적 변수로 다루졌다. Kraal, Penninx, & Berger(2006)는 성별 차이가 이주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본국을 떠나 이주를 희망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Toruńczyk-Ruiz & Brunarska(2020)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정착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성별과 정착 의

향 간의 관계는 이주민 집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주민의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동기와 행동 양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연령 또한 이주민의 정주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loemraad & Sheares(2017)는 어린 나이에 이주한 이민자들이 시민권 취득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Liu, Deng, & Song(2018)의 연구에서는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이주민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주 의향이 증가하지만, 35세 이상에서는 정주 의향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 축적, 사회적 통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연령은 이주민의 정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을수록 쌓아온 인적자본이 많아 이주에 있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이나 임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이주민의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된다. Dustmann & Kirchkamp(2002)는 해외에서의 임금 상승이 이주 기간을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Liu, Deng, & Song(2018)의 연구에서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정주 의향이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높은 소득 수준이 정착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Van Dalen & Henkens(2008)의 연구에서는 이민자가 비이민자보다 고등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았지만, 교육이 이민 결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Liu, Deng, & Song(2018)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이민자들과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이민자들이 정주 의향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주 의향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가족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 역할을 하며, 단독 이주자보다 가족 단위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Kushnirovich(2010)는 이스라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이 있는 이민자들이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Toruńczyk-Ruiz & Brunarska(2020)의 연구에서는 가족이 출신국에 남아 있을 경우 정주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정주 의향을 강화시키며, 가족이 출신국에 있을 경우 정주 의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이주민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주민의 정주 및 귀환에 관한 다양한 맥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남성일수록 높아질 것이다.
- H2.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질 것이다.
- H3.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임금이 증가할수록 높아질 것이다.
- H4.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질 것이다.
- H5.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낮아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국의 거시 경제 지표를 포함한 분석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Everett Lee의 Push-Pull 이론을 활용하였다. 해당 이론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을 떠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이주의 결정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intervening obstacles)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장애물 요인을 다루지 않으며, 이는 이주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push 요인과 pull 요인에만 집중하는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ushnirovich, N) (Lapid, G., Lugtu, A. J., & Dela Cruz, Eloisa).

Push 요인은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부정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국의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과 같은 지표를 주요 push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낮은 실질 GDP 성장률은 경제적 활력의 부족을 나타내며, 이는 이주의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 (Lapid, G., Lugtu, A. J., & Dela Cruz, Eloisa). 높은 인플레이션은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생활비를 증가시켜 외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Lapid, G., Lugtu, A. J., & Dela Cruz, Eloisa). 또한 높은 실업률은 본국에서의 고용 기회 부족을 의미하며, 이주자들이 외국에서 더 나은 직업을 찾도록 유도한다 (Kushnirovich, N). 송금액은 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족 부양을 위해 외국에서 더 나은 소득 기회를 모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Lapid, G., Lugtu, A. J., & Dela Cruz, Eloisa).

Pull 요인은 도착지에서의 긍정적인 매력으로 작용하며, 외국인의 정주의향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높은 임금과 낮은 실업률은 외국에서의 경제적 안정성을 상징하며, 이는 이주자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주요 pull 요인이다 (Kushnirovich, N). 또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주의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다 (Lapid, G., Lugtu, A. J., & Dela Cruz, Eloisa). 이러한 요인들은 본국의 push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최종적인 이주 결정을 유도한다 (Kushnirovich, N).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정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제적 변수들이 이주 및 정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이주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Lapid, G., Lugtu, A. J., & Dela Cruz, Eloisa). 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라 추가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6: 본국 실질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H7: 본국 명목 GDP가 낮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H8: 본국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H9: 본국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H10: 본국 실업률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H11: 외국에서의 송금액이 증가할수록 정주의향이 강화된다.

II. 연구 설계

1. 데이터 정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고용통계과가 주관하며 MDIS를 통해 공개된 공공 데이터인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로 시작하여,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명칭과 범위가 확대된 자료이다. 주요 목적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이민자의 유입과 사회적 통합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조사 대상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한국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귀화자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9년, 2021년, 2023년의 자료로 총 약 6만 5천 건이다. 연도별 조사 대상 규모는 2019년 24,150명, 2021년 23,718명, 2023년 18,243명이다. 조사는 매년 5월에서 6월 초까지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

행되며, 교육받은 조사원들이 응답을 유도하여 무응답을 최소화하였다. 통계청에서는 무응답 표본을 유사 집단 평균값으로 보완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항목에는 이와 같은 대체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다.

데이터의 주요 항목은 기본 조사 항목 외에도 2년 주기 순환조사 항목을 포함한다. 홀수년도인 2019년, 2021년, 2023년에는 고용Ⅱ, 교육,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구직경험 등이 포함되었으며, 짝수년도인 2020년, 2022년에는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한국어 능력 항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송금액과 임금수준 변수에 중점을 두었기에 개편 이후 홀수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2017년 데이터는 거주지역 항목에서 경기와 인천이 동일 번호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하였다.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 주기 순환조사 특성항목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본은 외국인등록 명부와 국내 거소신고 명부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하였다. 2019년과 2021년에는 층화단순임의추출법과 층화계통추출법을 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층화계통추출법으로 통일하였다. 2019년 이후 데이터는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이 상세히 정의되고, 자료 오류 확인 및 보완 절차가 추가되어 품질 관리가 강화되었다.

데이터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가중값, 무응답가중값, 사후가중값을 적용하였다. 설계가중값은 2021년까지 설계층별 1상, 2상 추출확률의 역수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에는 설계층별 추출확률의 역수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무응답가중값은 2019년까지 응답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에는 성, 연령, 체류자격, 국적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한 로짓모형을 통해 보정되었다. 사후가중값은 모든 연도에서 무응답 보정된 가중값을 벤치마크 변수로 층화하고 반복비례 조정을 통해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연도별 항목 간 응답 코드의 차이를 통일하고, 각 데이터에 연도 정보를 추가하여 통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표본 확보를 위한 데이터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데이터 항목명 설정 및 연도별 데이터 통합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의미를 확인하여 제거 혹은 범주형으로 포함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표 2. 기술 통계표>

| | Min. | 1st Qu. | Median | Mean | 3rd Qu. | Max. | NA's |
|-------------|-------|---------|--------|-------|---------|--------|-------|
| sex | 1.000 | 1.000 | 1.000 | 1.407 | 2.000 | 2.000 | |
| job | 1.000 | 1.000 | 1.000 | 1.376 | 2.000 | 2.000 | |
| time | 2019 | 2019 | 2021 | 2021 | 2023 | 2023 | |
| country | 1.000 | 1.000 | 3.000 | 5.488 | 11.000 | 16.000 | |
| age | 1.000 | 1.000 | 2.000 | 2.511 | 4.000 | 5.000 | |
| area | 1.000 | 3.000 | 4.000 | 4.266 | 6.000 | 8.000 | |
| final_edu | 1.000 | 2.000 | 3.000 | 2.94 | 4.000 | 4.000 | |
| wage | 1.000 | 3.000 | 3.000 | 2.97 | 3.000 | 4.000 | 16245 |
| R_remit | 1.000 | 5.000 | 6.000 | 5.826 | 8.000 | 8.000 | 25194 |
| duration | 1.000 | 3.000 | 4.000 | 4.23 | 5.000 | 6.000 | |
| spo | 1.000 | 1.000 | 1.000 | 1.46 | 2.000 | 2.000 | |
| spo_K | 1.000 | 1.000 | 1.000 | 1.785 | 3.000 | 3.000 | |
| child | 1.000 | 1.000 | 1.000 | 1.463 | 2.000 | 2.000 | |
| child_resi | 1.000 | 1.000 | 2.000 | 2.023 | 3.000 | 3.000 | 19614 |
| final_edu_c | 1.000 | 2.000 | 2.000 | 1.96 | 2.000 | 4.000 | 585 |
| hope_st | 1.000 | 1.000 | 1.000 | 1.932 | 4.000 | 5.000 | 5663 |

<표3. 기술 통계표>

| | Min. | 1st Qu. | Median | Mean | 3rd Qu. | Max. | NA's |
|----------------|--------|---------|--------|---------|---------|----------|------|
| time | 2019 | 2019 | 2021 | 2021 | 2023 | 2023 | |
| realGDP_growth | -0.400 | 2.625 | 5.000 | 4.680 | 6.250 | 8.400 | |
| nominalGDP | 14.21 | 41.51 | 385.45 | 2411.78 | 1172.50 | 17760.00 | |
| GDPpc | 1190 | 2618 | 4250 | 8026 | 7315 | 40550 | |
| inflation | -0.200 | 1.650 | 2.900 | 4.073 | 5.650 | 14.500 | |
| unemployment | 1.000 | 2.550 | 5.150 | 4.908 | 6.575 | 10.000 | 6 |

임금에 대한 결측치는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가 대다수이며, 임금을 받지 않는 형태의 노동을 하는 경우가 추가로 존재했다. 송금액의 결측치는 송금 여부의 '아니오' 응답자와 동일했고, 자녀 거주지 결측치는 자녀 여부의 '아니오' 응답자와 동일했다. 최종 학위 취득 국가와 희망 체류 방법에 대한 결측치는 불성실 응답자로 추정되어 제거하였다. 거시 경제 지표 중 실업률 결측치 6개는 한 해에 두 국가(캄보디아, 네팔)에서 3년간 발생한 결측치였다.

2. 연구 모형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Everett Lee의 Push-Pull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해당 이론의 이주의 결정이 출발지와 도착지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주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인 push 요인과 pull 요인에 집중하여 이주민의 정주 의향 결정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이 한국에 정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표4와 같은 비교 구조를 통해 정주의 순효용(Net Utility)을 분석했다. 각 개인이 한국에 정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주하지 않을 때 비해 얼마나 더 크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 정주의 순효용이 양수일 경우, 거주지에 정주하도록 유도하는 pull 요인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여 $y_i = 1$ (정주를 희망함)로 나타난다. 반면 정주의 순효용이 양수가 아닐 경우, 거주지를 이주하도록 촉진하는 push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정주 의향은 $y_i = 0$ (정주를 희망하

지 않음)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구조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ull 요인과 push 요인이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주의 순효용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주 의향이라는 종속변수가 정주를 희망함 또는 희망하지 않음이라는 이분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독립변수에 따라 이분형 종속변수 1(정주를 희망함)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표4. 정주 순효용에 따른 정주 의향 판단 기준>

| 정주를 희망하는 경우 | 정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
| $NetUtility_{settlement} > 0$ | $NetUtility_{settlement,i} \leq 0$ |

<표5. 정주 순효용에 따른 정주 의향 이진 분류>

| | |
|-----------|--|
| $y_i = 1$ | <i>if</i> $NetUtility_{settlement,i} > 0$ |
| $y_i = 0$ | <i>if</i> $NetUtility_{settlement,i} \leq 0$ |

<표6. 로지스틱 회귀분석 계산식>

| | |
|---------------|--|
| 로지스틱 회귀분석 계산식 | $P(y_i = 1 x_i) = \frac{1}{1 + e^{z_i}}$ $\left(z_i = \beta_0 + \sum_j \beta_j x_{ij} + \epsilon_i \right)$ |
|---------------|--|

<표7.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

| | |
|------|--|
| 모형 1 | Z_i $= \beta_0 + \beta_{sex} \cdot sex_i + \beta_{job} \cdot job_i + \sum_{j_{time}=1}^2 \beta_{time,j_{time}} \cdot time_{ij_{time}} + \sum_{j_{country}=1}^{15} \beta_{country,j_{country}} \cdot country_{ij_{country}}$ $+ \sum_{j_{age}=1}^4 \beta_{age,j_{age}} \cdot age_{ij_{age}} + \sum_{j_{area}=1}^7 \beta_{area,j_{area}} \cdot area_{ij_{area}} + \sum_{j_{edu}=1}^3 \beta_{edu,j_{edu}} \cdot edu_{ij_{edu}}$ $+ \sum_{j_{wage}=1}^3 \beta_{wage,j_{wage}} \cdot wage_{ij_{wage}} + \sum_{j_{R-remit}=1}^5 \beta_{R-remit,j_{R-remit}} \cdot R-remit_{ij_{R-remit}}$ $+ \sum_{j_{duration}=1}^5 \beta_{duration,j_{duration}} \cdot duration_{ij_{duration}} + \sum_{j_{spo-resi}=1}^3 \beta_{spo-resi,j_{spo-resi}} \cdot spo-resi_{ij_{spo-resi}}$ $+ \sum_{j_{child-resi}=1}^2 \beta_{child-resi,j_{child-resi}} \cdot child-resi_{ij_{child-resi}}$ $+ \sum_{j_{edu-country}=1}^2 \beta_{edu-country,j_{edu-country}} \cdot edu-country_{ij_{edu-country}}$ $+ \sum_{j_{missing}=1}^5 \beta_{missing,j_{missing}} \cdot missing_{ij_{missing}}$ |
|------|--|

<표8.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한 모형>

$$\begin{aligned}
 & Z_i \\
 & = \beta_0 + \beta_{sex} \cdot sex_i + \beta_{job} \cdot job_i + \beta_{g_i} \cdot g_i + \beta_{Y_i} \cdot \log(Y_i) + \beta_{\left(\frac{Y_i}{POP}\right)} \cdot \log\left(\frac{Y_i}{POP}\right) + \beta_{\pi_i} \\
 & \cdot \pi_i + \beta_{u_i} \cdot u_i + \sum_{j_{time}=1}^2 \beta_{time,j_{time}} \cdot time_{ij_{time}} + \sum_{j_{Chinese}=1}^2 \beta_{Chinese,j_{Chinese}} \cdot Chinese_{ij_{Chinese}} \\
 & + \sum_{j_{age}=1}^4 \beta_{age,j_{age}} \cdot age_{ij_{age}} + \sum_{j_{area}=1}^7 \beta_{area,j_{area}} \cdot area_{ij_{area}} + \sum_{j_{edu}=1}^3 \beta_{edu,j_{edu}} \cdot edu_{ij_{edu}} \\
 \text{모형 2} & + \sum_{j_{wage}=1}^3 \beta_{wage,j_{wage}} \cdot wage_{ij_{wage}} + \sum_{j_{R-remit}=1}^7 \beta_{R-remit,j_{R-remit}} \cdot R-remit_{ij_{R-remit}} \\
 & + \sum_{j_{duration}=1}^5 \beta_{duration,j_{duration}} \cdot duration_{ij_{duration}} + \sum_{j_{spo-resi}=1}^2 \beta_{spo-resi,j_{spo-resi}} \cdot spo-resi_{ij_{spo-resi}} \\
 & + \sum_{j_{child-resi}=1}^2 \beta_{child-resi,j_{child-resi}} \cdot child-resi_{ij_{child-resi}} + \sum_{j_{edu-country}=1}^2 \beta_{edu-country,j_{edu-country}} \\
 & \cdot edu-country_{ij_{edu-country}} + \sum_{j_{missing}=1}^7 \beta_{missing,j_{missing}} \cdot missing_{ij_{missing}}
 \end{aligned}$$

모형 1과 2는 공통적으로 이항 종속변수 y_i 가 1이 될 확률을 나타내는 잠재 변수 Z_i 를 개인 i 의 정주 의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β 는 각 설명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기여도를 나타낸다. 모형 1은 MD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이 정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Z_i 에 대한 설명변수로 성별, 직업 유무, 연도, 나이, 거주지역, 최종 학력, 임금, 송금액, 체류기간, 배우자 한국 거주 여부, 자녀 한국 거주 여부, 최종 학위 취득 국가를 설정했다. 이때 송금액 설명변수는 push 요인, 임금 설명변수는 pull 요인으로 고려했다. 한편, 결측값이 존재하는 5개 변수(배우자 한국거주 여부, 자녀 한국거주 여부, 임금, 송금액, 최종 학위 취득 국가)를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결측 여부를 확인했다. 성별, 직업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형 변수들은 더미 변수로 처리되어 각 더미 변수들이 Z_i 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하여 계산했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사용한 모형 2는 모형 1에 더하여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하여 이주민의 정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모형 2에서는 Z_i 에 대한 설명변수로 성별, 직업 유무,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연도, 중국 외 출신 국가, 나이, 거주지역, 최종 학력, 임금, 송금액, 체류 기간, 배우자 한국 거주 여부, 자녀 한국 거주 여부, 최종 학위 취득 국가를 설정하고 결측값이 존재하는 7개 변수(출신 국가³, 배우자 거주지, 자녀 거주지, 임금, 송금액, 최종 학위 취득 국가, 실업률)를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결측 여부를 확인했다. 해당 모형에서 push 요인은 본국의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지표와 송금액, pull 요인은 임금 설명변수를 통해 나타냈다. 다만, 거시지표가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국가 변수와 효과가 중복되므로 출신 국가 변수를 제외했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성별, 직업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형 변수들은 더미 변수로 처리되어 각 더미 변수가 Z_i 에 미치는 영향을 합산하여 계산했다. 해당 모형에 새롭게 추가된 연속형 변수인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중 명목 GDP, 1인당 GDP는 그 값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log 변환을 적용했다. 이는 해당 변수들의 영향을 더욱

³ 응답이 국가가 특정되지 않는 북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기타 출신 국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후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y_i = 1$)의 응답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계 효과를 구했다. 이 한계 효과를 통해 몇 %p 단위로 각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설명변수가 범주형 변수(성별, 나이, 직업 유무, 연도, 출신 국가, 거주지역, 최종 학력, 송금액, 임금, 체류 기간, 배우자 한국 거주 여부, 자녀 한국 거주 여부, 최종 학위 취득 국가)인 경우에는 기준 범주와의 확률 차이로 해석하고, 연속형 변수(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인 경우에는 1단위 증가에 따른 확률 변화를 직접 해석한다. \log 를 취한 변수들은 1% 변화했을 때의 확률 변화를 해석한다.

<표9. 한계효과 계산식>

| | |
|------------------------|---|
| Marginal Effect | $\frac{\partial P(y_i = 1 x_i)}{\partial x_{ij}} = \beta_j \cdot P(y_i = 1 x_i) \cdot (1 - P(y_i = 1 x_i))$ |
|------------------------|---|

<표10. 한계효과 설명>

| | |
|---|---|
| $\frac{\partial P(y_i = 1 x_i)}{\partial x_{ij}}$ β_j $P(y_i = 1 x_i)$ $(1 - P(y_i = 1 x_i))$ | 주어진 설명변수 x_{ij} 에서 종속변수($y_i = 1$)의 확률을 x_{ij} 에 대해 편미분한 것 x_{ij} 가 y_i 에 미치는 영향, 회귀계수 정주를 희망할 확률 정주를 희망하지 않을 확률 |
|---|---|

Ⅲ. 연구 결과

<표 11. 분석결과표>

| | | Coefficients | Marginal Effects | SE | P> z | | |
|----------------|------------------|--------------|------------------|--------------|---------------|-------|-----|
| 성별 | 남성 | -1.89567 | -0.0175623 | 0.0048751 | 0.0003152 ... | | |
| 직업유무 | 있음 | 0.61183 | 0.0884630 | 0.0132896 | 2.803e-11 ... | | |
| 연도 | 2021 | -0.32444 | -0.0468961 | 0.0073895 | 2.803e-10 ... | | |
| | 2023 | -0.02853 | -0.0041935 | 0.0066789 | 0.5300829 | | |
| 국가 | 중국인 | 0.87194 | 0.1394893 | 0.0328862 | 2.220e-05 ... | | |
| | 한국계 중국인 | 1.69852 | 0.2616901 | 0.0295868 | < 2.2e-16 ... | | |
| 본국 GDP | 본국 실질GDP | 0.04273 | 0.0062899 | 0.0019535 | 0.0012829 .. | | |
| | 본국 명목GDP | -0.09423 | -0.0138712 | 0.0056131 | 0.0134647 .. | | |
| | 본국 1인당GDP | -0.06845 | -0.0100768 | 0.0139855 | 0.4712042 | | |
| | 본국 인플레이션 | 0.04704 | 0.0069244 | 0.0020697 | 0.0008210 ... | | |
| 출신국 실업률 | | -0.01759 | -0.0025889 | 0.0026931 | 0.3363927 | | |
| 연령대 | 30-39세 | 0.35540 | 0.0543247 | 0.0084824 | 1.510e-10 ... | | |
| | 40-49세 | 0.20900 | 0.0316870 | 0.0102735 | 0.0020400 .. | | |
| | 50-59세 | -0.23736 | -0.0338925 | 0.0096233 | 0.0004284 ... | | |
| | 60세 이상 | -0.34182 | -0.0480580 | 0.0099360 | 1.320e-06 ... | | |
| 거주지역 | 경기도 | 0.10432 | 0.0155571 | 0.0070283 | 0.0268642 . | | |
| | 인천 | 0.20936 | 0.0318751 | 0.0095991 | 0.0008982 ... | | |
| | 경남 | 0.17928 | 0.0270043 | 0.0084129 | 0.0013280 .. | | |
| | 호서 | -0.12799 | -0.0185421 | 0.0075075 | 0.0135192 . | | |
| | 경북 | 0.05211 | 0.0077318 | 0.0099577 | 0.4374715 | | |
| | 호남 | 0.13019 | 0.0195036 | 0.0093738 | 0.0374668 . | | |
| | 강원/제주 | 0.11309 | 0.0169475 | 0.0111148 | 0.1273167 | | |
| 최종학력 | edu_middle | -0.04091 | -0.0059934 | 0.0080229 | 0.4550401 | | |
| | edu_secondary | -0.01855 | -0.0027295 | 0.0076695 | 0.7219224 | | |
| | edu_higher | -0.01548 | 0.0022750 | 0.0087743 | 0.7594243 | | |
| 월평균임금 | wage100200 | 0.06118 | 0.0090837 | 0.0161789 | 0.5744878 | | |
| | wage200300 | 0.08455 | 0.0125219 | 0.0155806 | 0.4215796 | | |
| | wage300500 | 0.40635 | 0.0632684 | 0.0181335 | 0.0004848 ... | | |
| 월평균 송금액 | R_remit_01000200 | 0.25784 | 0.0396432 | 0.0284641 | 0.1636969 | | |
| | R_remit_02000300 | 0.03851 | 0.0057086 | 0.0277500 | 0.8370120 | | |
| | R_remit_03000500 | 0.25652 | 0.0394259 | 0.0280520 | 0.1598852 | | |
| | R_remit_05001000 | 0.18775 | 0.0284678 | 0.0261546 | 0.2763999 | | |
| | R_remit_10001500 | -0.03574 | -0.0052322 | 0.0247795 | 0.8327684 | | |
| | R_remit_15002000 | -0.29541 | -0.0412830 | 0.0238729 | 0.0837583 . | | |
| | R_remit_20000000 | -0.54854 | -0.0733145 | 0.0214914 | 0.0006464 ... | | |
| 한국 체류 기간 | duration_6m1y | -0.17939 | -0.0256211 | 0.0252697 | 0.3106268 | | |
| | duration_1y3y | 0.18758 | 0.0281085 | 0.0258109 | 0.2761451 | | |
| | duration_3y5y | 0.41173 | 0.0626196 | 0.0263740 | 0.0175826 . | | |
| | duration_5y10y | 0.84134 | 0.1305362 | 0.0271473 | 1.521e-06 ... | | |
| | duration_10y | 1.05089 | 0.1720910 | 0.0301742 | 1.175e-08 ... | | |
| 배우자 거주지 | 한국 내 | -0.01925 | -0.0028240 | 0.0162845 | 0.8623230 | | |
| | 한국 외 | -0.62910 | -0.0859101 | 0.0066603 | < 2.2e-16 ... | | |
| 자녀 거주지 | 한국 내 거주 | -0.23390 | -0.0331267 | 0.0085196 | 0.0001009 ... | | |
| | 한국 외 거주 | -0.38407 | -0.0545481 | 0.0062251 | < 2.2e-16 ... | | |
| 최종 학위 | 본국 | -0.22366 | -0.0338180 | 0.0092974 | 0.0002754 ... | | |
| 취득국가 | 외국 | -0.23174 | -0.0326987 | 0.0132295 | 0.0134488 . | | |
| 거시경제지표 결측 | NA | | | | | | |
| 배우자 거주지 결측 | | -0.18402 | -0.0270842 | 0.0060035 | 6.435e-06 ... | | |
| 배우자 거주지 결측 | | | | | | | |
| 자녀 거주지 결측 | | -0.33619 | -0.0492228 | 0.0075765 | 8.207e-11 ... | | |
| 월평균임금 결측 | | 0.65277 | 0.0963584 | 0.0195964 | 8.782e-07 ... | | |
| 송금 횟수 및 송금액 결측 | | 0.25089 | 0.0364348 | 0.0225134 | 0.1055853 | | |
| 출신국가 실업률 결측 | | -0.54813 | -0.0732059 | 0.0226125 | 0.0012062 .. | | |
| 최종학력 결측 | | -0.22298 | -0.0314683 | 0.0184878 | 0.008873348 . | | |
| 한국계 중국인 | 중국 (한국계 제외)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일본 | |
| | 13677 | 3902 | 5019 | 2314 | 927 | 1369 | 281 |
| 몽골 | 캄보디아 | 네팔 | 기타 아시아 | 북미 (미국, 캐나다) | 유럽 | 오세아니아 | |
| | 624 | 1375 | 1468 | 4613 | 2261 | 1945 | 233 |

성별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한국에 정주할 의향이 1.7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유럽과 이스라엘의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르게, 여성에 비해 남성이 한국에 정주할 의향이 1.76%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의 이주 열망 가능성이 더 높은 모든 분석은 동아시아 출신에서 발견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한다. (Aslany, M., Carling, J., Mjelva, M. B., & Sommerfelt, T., 2021) 실제로 우리 연구 표본의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 출신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남성일수록 높아진다(H1)는 가설은 기각된다.

직업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직업 있으면 정주 의향이 8.8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직업이 있는 이민자의 정주 의향이 8.85%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안정감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제공하는 직업이 정주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도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2019년에 비해 2021년이 정주 의향이 4.6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정주 의향이 감소한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다. 대한민국도 사회적 거리 두기,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이민자들의 생활 환경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국인들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대한민국에 대한 정주 의향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동남아 표본이 많은 우리의 연구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2019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물가가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출신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중국 출신이 아닌 사람에 비해 중국 출신이 정주 의향이 13.9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이 아닌 사람에 비해 한국계 중국인이 26.17%p 높다.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 출신과 한국계 중국인 모두 정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계 중국인은 대한민국과 언어적·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고 적응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대한민국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체류와 관련하여 재외동포 비자(F-4)와 같은 우대 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내에는 이미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 이민자들이 형성한 차이나타운과 같이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연령대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15-29세에 비해 30-39세가 정주 의향이 5.43%p 높고, 15-29세에 비해 40-49세가 정주 의향이 3.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29세에 비해 50-59세가 정주 의향이 3.39%p 낮고, 15-29세에 비해 60세 이상이 정주 의향이 4.8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이주민의 정주 의향은 경제활동 기회와 생애주기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15-29세는 이동성과 단기적 기회를 선호해 정주 의향이 낮고, 30-39세는 경제활동과 가족 형성으로 정주 의향이 가장 높다. 40-49세는 안정성을 중시해 정주 의향이 유지되지만, 50-59세는 경제활동 축소로 본국 복귀를 선호하며 정주 의향이 낮아진다. 60세 이상은 은퇴와 생산성 감소로 본국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며 정주 의향이 가장 낮다. 즉, 직무 이동이 가능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정주 의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 동부권에 35세~60세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주 의향이 감소함이 관찰되었던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Liu, Y., Deng, W., & Song, X., 2018)

이러한 차이는 중국 동부권에서 관찰된 연령 증가에 따른 정주 의향 감소가 고향으로 돌아가 은퇴 후 생활을 선호하는 국가적 경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내의 전통적 가족 중심 문화와 은퇴 이후의 생활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년층에게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 정주 의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정주 의향이 높아진다(H2)는 가설과 차이가 있다.

거주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서울에 비해 경기도가 정주 의향이 1.5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이나 화성, 인천 등 이주민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적응적 차원,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서울에 비해 이주민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서울에 비해 인천이 정주 의향이 3.19%p 높고, 서울에 비해 경남이 정주 의향이 2.7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꾸준히 이주노동자 인력을 투입하며 이주민 정

책이 활발하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나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스템 보장이 정주 의향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에 비해 호서가 정주 의향이 1.85%p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호서 지역에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혹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업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호서 지역의 경우 ‘2019 충남 사회조사를 통해 확인된 충청도민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큰 편이고, 2016년 대비 2019년 다문화사회 인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201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호남 지역이 서울 지역에 비해 정주 의향이 높은 이유는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을 펴고 있다.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 인천, 경남, 호남에서 정주 의향이 높은 것은 생활비 절감, 고용 기회, 사회적 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호서 지역에서는 경제적 기회 부족과 지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정주 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임금이 300-500만 원인 경우 정주 의향이 6.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임금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H3)는 가설이 수용된다.

체류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6개월 미만에 비해 3-5년이 정주 의향이 6.26%p 높고, 6개월 미만에 비해 5-10년이 정주 의향이 13.05%p 높고, 6개월 미만에 비해 10년 이상이 정주 의향이 17.2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주 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동화 이론에 따르면 이민자 집단이 수용국에 오래 머물수록 주류 사회의 구성원과 유사해지면서 수용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설명된다.

배우자 한국 거주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배우자와 한국에 동거할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 정주 의향이 8.5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정주 의향이 8.5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부재가 가족 단위의 안정된 정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주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정주 결정을 촉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가계 소득의 분산이나 생활비 부담 증가 등이 정주 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녀 한국 거주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자녀 모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비해 자녀 일부가 한국에 거주할 때 정주 의향이 3.38%p 낮고, 자녀 모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비해 자녀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 정주 의향이 5.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재가 가족의 정착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자녀의 거주 여부가 부모의 정주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족의 안정과 미래 계획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나 생활비 지원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단위의 정착은 이민자의 정주 의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Toruńczyk-Ruiz, S., & Brunarska, Z., 2020). 이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낮아진다(H5)는 가설은 수용된다.

배우자 거주지 결측값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배우자 거주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정주 의향이 2.7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재가 한국에 정주하려는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배우자의 부재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사라져 특정 지역에 정주하려는 의사 결정을 약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 거주지 결측값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자녀 거주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정주 의향이 4.9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의 부재가 한국에 정주하고자 하는 결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부재할 경우 자녀에게 드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져 더 많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정주 의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종 학위 취득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최종학위를 한국에서 취득한 경우에 비해 최종학위를 본국에서 취득한 경우 정주 의향이 3.3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위를 한국에서 취득한 경우에 비해 최종학위를 외국에서 취득한 경우 정주 의향이 3.27%p 낮았다. 이는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이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려는 의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임금 결측치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임금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에 정주할 의향이 9.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측은 직업이 없어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응답에 불성실했을 경우, 또는 임금을 밝히기 싫은 경우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Push-Pull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거시경제 변수의 결과이다. 이론적 틀에 따라 본국의 경제적 push 요인과 도착지의 pull 요인이 외국인의 정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신 국가의 해당 연도 실질 GDP 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1%p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0.63%p 높게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네팔,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push 요인이 한국의 복지와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pull 요인과 상호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선진국 출신 이민자들은 자국의 높은 경제적 안정성으로 인해 한국에 정주할 매력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본국 실질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H6)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출신 국가의 해당 연도 명목 GDP가 다른 국가에 비해 1%p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1.39%p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의 명목 GDP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기대하며 한국에 정주할 의향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push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착지의 pull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본국 명목 GDP가 낮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H7)는 가설은 수용되었다.

출신 국가의 해당 연도 인플레이션이 1%p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0.69%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본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push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한국으로 정주 의향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국에서의 높은 생활비와 경제적 불안정성은 이민자들에게 도착지의 pull 요인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국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H9)는 가설은 수용되었다.

실업률에 대한 분석 결과, 실업률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정주의향이 7.3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캄보디아와 네팔의 데이터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결측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실업률의 영향을 명확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높은 본국 실업률은 push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정주의향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국 실업률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H10)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연간 송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정주의향이 7.33%p 낮게 나타났다. 송금액이 많다는 것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이주민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과의 재결합 욕구를 강화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송금액이 높을수록 본국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정주 의향은 약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외국에서의 송금액이 증가할수록 정주의향이 강화된다(H11)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Push-Pull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거시경제 변수 분석 결과, 본국의 경제적 push 요인(낮은 GDP,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도착지의 경제적 pull 요인(본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생활 환경 등)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정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도착지로서의 매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본국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가설을 세웠던, 최종 학력(H4), 본국 1인당

GDP(H8)를 포함한 변수들은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결론

1. 연구 요약

한국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이민과 정착을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외국인의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직업, 임금, 송금액, 체류 기간, 가족의 거주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정주 의향이 더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정주 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30~39 세가 가장 높은 정주 의향을 보였고, 50 대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송금액이 많을수록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주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족 요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정주 의향이 높아졌으며,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정주 의향이 감소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라도 정주 의향이 달라졌다. 경기도와 인천, 경남은 정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비 절감과 고용 기회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호서 지역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기회 부족이 정주 의향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신국 요인에서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 출신 이민자의 정주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언어적·문화적 유사성과 한국 내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거시 경제적 변수로는 본국 명목 GDP가 높을수록 정주 의향이 낮았지만, 본국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정주 의향이 증가했다.

다음은 수용된 가설이다.

- H3.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임금이 증가할수록 높아질 것이다.
- H5.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낮아질 것이다.
- H7. 본국 명목 GDP가 낮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 H9: 본국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다음은 기각 또는 미확인 가설이다.

- H1.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남성일수록 높아질 것이다.
- H2.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질 것이다.
- H4. 외국인의 한국 정주 의향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질 것이다.
- H6: 본국 실질 GDP 성장률이 낮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 H8: 본국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 H10: 본국 실업률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정주의향이 증가한다.
- H11: 외국에서의 송금액이 증가할수록 정주의향이 강화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여성 이주민과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가족 단위 정착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과 졸업 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자 발급 및 연장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셋째,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연구의 한계로는 표본이 동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집중된 점, 정주 의향과 실제 행동 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한 점, 비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신국 이민자와 비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 정책의 현실적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기여를 촉진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 외국인의 응답 항목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정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push-pull 이론에 따라 본국의 거시경제적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직업 유무, 연령, 임금, 송금액, 체류 기간, 거주 지역, 배우자와 자녀의 한국 거주 여부, 최종 학위 취득 국가 등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정주의향에 미치는 기본적인 영향을 탐구하였다. 이후, 본국의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거시경제적 요인을 추가 분석하여 본국과 도착지 간 경제적 차이가 정주의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며, 특히 현재 외국인 이민자의 비수도권 정착 선호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외국인 이민자의 증가가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직업 유무, 임금, 가족의 거주 여부가 정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주민은 남성보다 정주의향이 높아,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 이주민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비 불균형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업이 있고 높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일수록 정주의향이 증가했으며, 이는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순노동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정주의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같은 가족 단위 정착 지원 정책이 이민자 통합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최종 학위를 한국에서 취득한 외국인은 정주의향이 높게 나타나, 외국인 유학생 유입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거시경제적 변수를 기반으로 한 push-pull 이론 분석에서는 본국 명목 GDP가 낮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한국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본국 명목 GDP가 낮을수록 정주의향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본국 경제적 조건의 열악함이 도착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부각시켰음을 보여준다. 본국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본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push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 정주의향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본국 push 요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착지로서의 한국의 경제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 매력적인 주거 여건 조성, 체류 및

취업 허가 절차 간소화와 같은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본국 경제적 불안정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특정 국가의 push 요인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한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상 정착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 비용 지원, 한국어 교육, 지역 기반 직업 알선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도착지로서 한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특성을 반영한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반 정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이 많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을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민자들이 수도권 외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면,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의 정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성 이주민의 경제적 참여 확대, 가족 단위 정착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입 및 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적 접근은 외국인의 정주의향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 및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국 경제적 불안정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은 도착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강화하고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주 의향은 주관적 의도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정주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연구 결과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제한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정주 의향을 보인 이민자라도 본국의 가족과 재결합하거나 본국의 경제 상황 변화, 한국 내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제 정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행동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 데이터를 포함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표본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출신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를 다른 지역 출신 이주민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 외의 다른 지역 출신 이민자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동기,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통합 수준을 가질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오세아니아와 북미 국가의 GDP 와 같은 거시적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한 점은, 경제적 배경이 정주 의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제한을 주었다. 이는 거시적 경제 지표와 지역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이주민의 정주 의향에 대한 주요 요인을 포괄하려 했지만, 이주민이 한국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 법적 제약,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도 정주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 해석에 있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본국의 경제 지표의 변화가 정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나, 한국의 경제 지표와의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국 경제 지표의 변화만으로는 경제적 변인이 정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맥락에서 설명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비교사회연구로서 두 국가의

경제적 차이가 개인의 정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지표의 비교가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임금 수준과 송금액, 그리고 출신 국가의 경제적 지표가 정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을 가진 이민자 집단을 포괄하여, 정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동반 정책과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이주민의 경제적 안정성과 정주 의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주 의향을 실제 정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참고문헌

- 김영란, 김이선, 김난주, 강승호, 이철선, & 황경진. (2015).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수립연구-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5(40), 0-0.
- 이규용. 20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 활용 방안 모색」, 2015 한국이민학회 전기학술대회 토론회
- 최인지, & 신형진. (2019).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정착 의향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42(4), 121-141.
- 통계청. 2023. 2023년 이민자채류실태및 고용조사 결과.통계청.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109&act=view&list_no=430445
- Aslany, M., Carling, J., Mjelva, M. B., & Sommerfelt, T. (2021). Systematic review of determinants of migration aspirations. *Changes*, 1(18), 3911-3927.
- Bloemraad, I., & Sheares, A. (2017). Understanding membership in a world of global migration:(How) does citizenship matter?.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1(4), 823-867.
- Borjas, G. J. (1987). Self-selection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No. w224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hiswick, B. R., & Miller, P. W. (2009).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s of immigrant characteristics and country of origin. In *Ethnicity and labor market outcomes* (pp. 91-130).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Dustmann, C. (2001). Why go back? Return motives of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Policies and Economic Impact*, Routledge, London, 229-249.
- Dustmann, C., & Kirchkamp, O. (2002). The optimal migration duration and activity choice after re-migra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7(2), 351-372
- Goel, K., & Goel, R. (2009, May). Settlement of immigrants in regional South Australia—role of socioeconomic determinants. In *10th National Rural Health Conference in Cairns* (Vol. 1720).
- Kraal, K., Penninx, R., & Berger, M. (2006).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ettlement in Europe: A state of the art.
- Kushnirovich, N. (2010). Migrant workers: Motives for migration, contingency of choice and willingness to remain in the host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Nations*, 10(3), 149.
- Lapid, G., Lugtu, A. J., & Dela Cruz, Eloisa. (2022).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f Overseas Filipino Workers. *Journal of Economics, Finance and Accounting Studies*, 4(1), 492-515
- Liu, Y., Deng, W., & Song, X. (2018). Influence factor analysis of migrants' settlement inten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city. *Applied Geography*, 96, 130-140.
- Mak, A. S. (1997). Skilled Hong Kong immigrants' intention to repatriate.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6(2), 169-184.
- Shay, C. (2019). A Study of Permanent Residency Intentions and Behaviors by Highly Skilled Temporary Chinese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 Shin, H. J., & Liang, Z. (2014). Ethnic labor market contexts and the earnings of Asian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52(2), 140-157.

- Toruńczyk–Ruiz, S., & Brunarska, Z. (2020). Through attachment to settlement: Soci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migrants' intentions to sta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15), 3191–3209.
- Van Dalen, H. P., & Henkens, K. (2008). Emigration intentions: Mere words or true plans? Explain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ntions and behavior. Explain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ntions and behavior (June 30, 2008).
- Vasiljeva, K. (2014). On the importance of macroeconomic factors for the foreign student' s decision to stay in the host country.